

2006. 9. 6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사례

내용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의료사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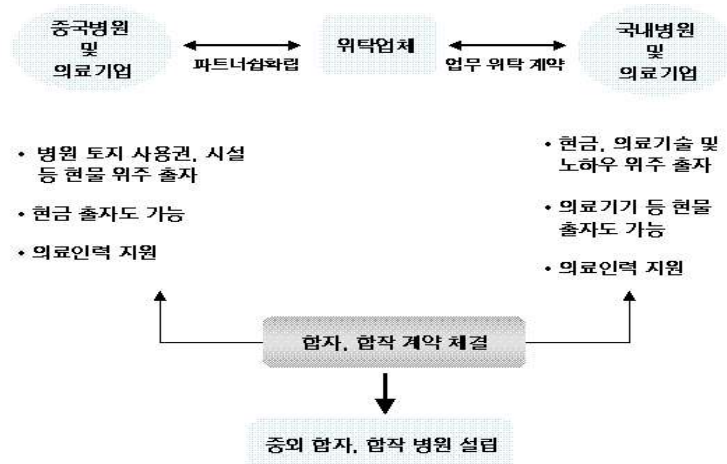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사례

○ 진출 형태

합자·합작

- 중국에서 규정한 정식 외자 도입에 의해 설립된 병원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 외국 독자병원 형식이 갖는 법적 제한과 투자 규모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병원 경영 성과에 따라 많은 이윤 창출과 배당이 가능

합자·합작 병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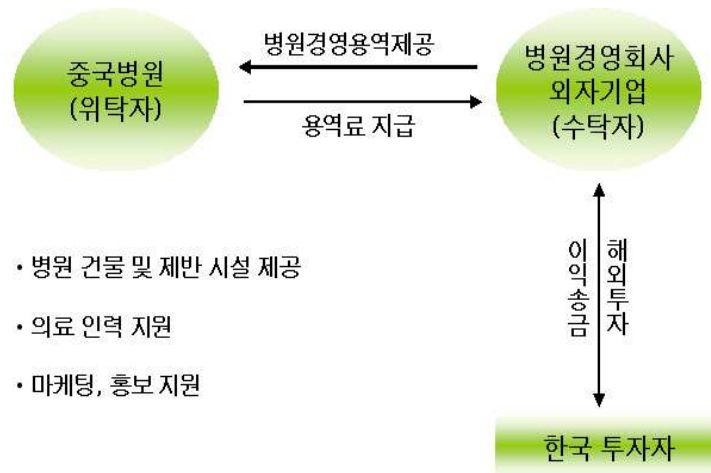


기술합작 (위탁경영방식)

- 중국은 병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 및 용역과 법률 절차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병원은 선진 의료에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을 말함
- 중국 병원이 병원 부지 및 건물, 중국의료진, 마케팅, 외국인 의사 행위 지원, 법적 안전장치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
- 선진 의료기술을 가진 해외 병원들은 의료 기술 및 서비스, 의료 설비 및 투자 장비, 인력 교육 및 연수 등을 지원
- 위탁 관계 성립 후, 원래 병원의 주요 인사 지위와 직무는 변하지 않음
- 수탁자는 경영자 신분으로 일을 하며, 자신의 경영팀을 조직해서 위탁자

-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음
- 현금이나 현물 출자가 없어 투자자의 위험이 적음
 - 투자자의 큰 수익 창출이 힘들고 실제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는 거의 취하지 않는 형태

위탁경영방식



원내원 방식

- 병원 내에 병원을 개원하는 형식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병원과 계약 후 개업
- 본인 명의가 아닌 중국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계약 병원과의 수익 분배에 대한 개념이 불안정함
- 상대 병원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독자적인 운영과 마케팅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중국 파트너와의 불화가 있어서 투자를 회수하거나 청산하고자 할 경우 거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병원관리회사 합작 및 인수

- 병원관리회사 합작 및 인수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음
 - 중국 위생부 비준을 받은 중외 합작, 합자 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 지분을 인수

- 국영 병원의 민영화 방침에 따른 중국 투자회사에 합작 참여하는 형식을 말함

○ 의료기관 진출 사례

-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성형, 피부미용, 치과 등 미용성형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류 열풍과 함께 성형 분야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음
- 중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중외 합자·합작 방식으로 진출한 기관은 SK아이강병원, 상해루이리병원, Ye네트워크이며, 이외 중국에 개원한 의료기관들은 중국인 명의를 차용 또는 원내원 형식으로 개원하고 있음

국내 의료기관의 투자 형태별 중국 진출

투자 형태	방 법	국내 의료기관
합작·합자	국내 투자법인과 해외 투자법인이 합자한 후 의료기관 설립	SK아이강병원 (북경), 루이리병원 (상해)
	국내 개인 투자자가 해외 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 설립	BK성형외과 (상해)
	국내 투자법인이 해외 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 설립	Ye네트워크 (상해)
원내원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의료기관의 시설 내 일부 사용 계약을 체결 (독립 의료기관 아님)	마리아병원 (북경)
	국내 의료기관이 독립된 해외 의료기관을 현지인 명의로 개설	GF병원 (청도)
기술 합작	해외 의료기관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출장 진료하는 방식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의료기관에 경영 및 의료 인력을 파견	

[사례 1] SK아이강병원

- 北京愛康醫院有限責任公司是 중국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Beauty Care(성형외과, 미용치과, 피부과)와 한국 교민과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Family Care(소아과, 내과, 부인과, 건강검진, 중의과) 의료서비스를

- 제공하는 중국 제1호 한중합자병원으로 2004년 4월 개원
- 총 자본금 2천만 위안(원화 약 25억원)이며, 재원 마련은 다음과 같음
 - SK Life Science(SK China와 한국의 5개 의원 ; 초이스피부과의원, 유니언스이비인후과의원, 탐성형외과의원, 새빛안과의원, 예치과의원)가 공동으로 병원사업을 위한 Joint Venture를 홍콩에 설립하여 70% 투자
 - 중국 파트너 30% : 중국 위생부 국제교류협력센터 20%, 福州 Indesen 10%
 - 현재 보유 병상은 25병상(VIP 4병상, 1인실 7병상, 2인실 7병상)이며, 진료 과목은 11개
 - 1층 : 소아과, 부인과, 내과, 이비인후과, 검진센터 등 Family Care Center
 - 2층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등 Beauty Care Center
 - 3층 : 중의과 및 입원병실
 - 4층 : 수술실 4개
 - 아이캉병원의 운영 모델 컨셉은 한국 성형미용 중심의 High-end Wellness 전문병원으로 주 고객 대상과 서비스는 중국인은 Beauty Care(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국 교민은 Family Care(소아과, 내과, 부인과, 종합건강, 중의과)로 구별되어 있음
 - 기존 중국 병원과 차별화된 간호사(의사 진료 보조) 및 코디(고객서비스 관리) 제도를 운영하며, High Class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중심의 동선 및 환경 설계, VIP 병실·휴게실 등 고급 의료 환경을 마련·제공
 - 초기에는 교민을 대상으로 Family Care를 실시 한 후 차츰 중국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고객 사후관리 및 Target Marketing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 하는 동시에 한국식 고급 의료서비스 도입 및 MBO식 운영으로 수익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진료 수가는 다음과 같음
 - 일반인의 초진 진료비는 200위안(약 26,000원), 재진 진료비는 초진 진료비의 1/2 수준 (유학생은 일반인의 반 수준)
 - 주요 검사비 : CT(요추)는 1,000위안(약 130,000원), 초음파는 400위안(약 52,000원)
 - 입원료 : 1인실은 700위안(약 91,000원), 2인실은 500위안(약 65,000원)

- 1일 평균 진료 인원 : 70~80명 수준
- 의료비용 대비 의료수익의 손익분기율은 약 80% 수준 (현금 수지 기준)
- 향후 중국 시장에 2006년까지 적응한 후 2007년 확장기를 목표로 심천, 천진, 청도 지역으로 Medical Wellness(Beauty Care + Family Care)를 추진할 예정

[사례 2] 상해 루이리성형미용병원

- 주식회사 큐브아이엔씨(BK성형외과의원, 고운세상피부과의원, 평촌예치과의원)를 설립하여 2004년 11월 29일 상해에 루이리성형미용병원 유한공사를 개원
- 중국 중앙정부 위생부 및 상무부로부터 정식 비준을 받은 합법적 중외합자 의료기관. 이는 중국 내 두번째이며 상해 최초 중외합자 의료기관
- 해외진출 동기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한국 의료시장의 시장 포화에 따르는 경쟁 심화로 중국을 탈출구로 평가한 결과
 - 중국 의료시장 개방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 상황과 소비 시장의 지속적 확대를 겨냥
 - 또한 미용의료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이며 한국 미용성형 분야에 대한 기술력은 중국 의료시장 내에서 인정받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중국 투자비 규모는 다음과 같음
 - 현지 투자비 : 당 병원 총 자본금 2,500만 위안 (전액 현금 투자)
 - 주식회사 큐브아이엔씨 70% 전액 현금 투자 (1,750만 위안, 한국은행에 해외투자 신고 후 송금)
 - 上海루이진병원 (1907년에 설립된 상해 제2의과대학 부속병원, 매출 기준 중국 내 2위, 상해 1위, 본원 및 3개 분원을 소유하고 있고, 총 9개의 중외합자 병원 투자) 30% 현금 투자 (750만 위안)
- 루이리병원은 중방 합자병원인 상해 루이진병원의 분원 건물 임차 사용
 - 입주병원 전체 면적 : 약 30,000m²
 - 사용 면적 : 2,400m²
 - 진료 과목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피부과 부설 피부관리실
 - 병상 수 : 입원 병상 20병상, 치료 병상 20병상
 - 진료실 8개, 상담실 6개

- 주요 병원 시설 : 수술실 6개, 치과용 치료실 6개, 개인 입원실 5개, 다인 입원 병상 15개, 치료실 8개, 처치실 5개실, 피부외과 레이저실 5개, 약국 1개실, 피부관리실 7개 (총 30개 Beds), 방사선실, 소독실 등
- 환자 편의시설 : 6개소의 환자 대기·휴식실 (서비스 카운터 포함), 고객 쉐어링실 및 Locker 3개, 고객용 파우더실 3개 등
- 국내 인력은 상주 의사 3명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각 1명), 출장 진료의사 5명 (성형외과 2명, 치과 3명), 경영(행정) 인력 3명
- 현지 채용 인력은 37명으로 성형외과 의사 1명, 마취과 의사 1명, 출장 마취의사 1명,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등을 채용하고 있음
- 개원 이래 환자 진료 실적은 2005년도 약 10,000명 정도 환자를 진료·시술하였으며, 환자 중 중국인 비율은 전체 70% 수준. 중국인 비율은 성형 98%, 피부과 60%, 치과 30%. 상해 주재 한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음
 - 경영 실적 : 의료 비용 대비 수익의 손익분기비율은 약 67% 수준
 - 진료과별 수익 구조 : 성형외과 50%, 피부과 30%, 치과 20%
- 진료 수가는 중국 현지 수가의 약 3~10배 수준으로 한국과 동일하거나 약간 높게 정함
- 중국의 경우, 국영 병원이 아니면 국가 의료보험과 연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 브랜드의 사보험사와 연계 (단, 치과 교정 및 미용 불가)하는 계획을 추진 중
-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 네트워크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상해 인근 지역에 중소 규모의 분원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확장을 추진할 예정

[사례 3] 상해 Ye Medical Center

- 메디파트너(주)가 중국에 예성투자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중국인 명의로 2005년 10월 17일 개원
 - 총 투자비는 360만 달러이며, 이는 메디파트너(주)에서 단독 부담
- 의료산업화에 대비한 영리 병원의 노하우 획득, 넓은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의 진출 경험(SK아이강병원)을 활용하여 중국 상해에 진출
- Ye Medical Center는 1~4층을 임차하여 사용
 - 전체 약 5,500㎡ 중 2,500㎡를 사용

- 진료실 수 : 14개실, 상담실
- 진료 과목 : 내과, 부인과, 소아과, 치과, 성형외과, 중의과
- 주요 병원 시설 : 수술실, X-Ray실, 검사실
- 환자 편의시설 : Cafe, Spa
- 국내 인력은 상주 의사 3명, 기타 의료인력 6명, 경영(행정) 인력 3명
- 현지 인력 43명을 채용
- 진료 수가는 우리나라 진료비 수준 또는 우리나라 강남 지역 병원의 진료 수가 정도 수준
- 개원 이후 2개월 동안 1,300명을 진료하였으며, 환자 중 한국 환자는 소아과 및 내과 95%, 성형 30%, 치과 70%이며, 외국 환자는 성형 70%, 치과 30%
 - 월 평균 약 120만 위안 매출 실적(한화 기준 약 1.56억 원 정도)을 달성하여 의료 수익의 손익분기비율은 약 75% 수준
 - 진료과별 수익 구조 : 성형외과 30%, 치과 30%, 소아과 30%, SPA 10%
- 향후 2006년 상해 인근 지역에 중소 규모의 분원 설립을 시작으로,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확장 계획 (심천, 청도)

[사례 4] 마리아 병원

- 2003년 6월 중국 선양에 ‘동방미용정형의원’이라는 현지 병원명으로 개원
 - 중국은 산아 제한으로 시험관시술이 강함
 - 중국에서 시험관 아기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다만 생식세포 관련 제도는 완화되어 있음 (한 城에 시험관아기 시술기관은 2개만 허용)
- 진출 형태는 마리아병원, 이비노기과의원, 클린업피부과의원, 이지나치과의원 등 국내 의료기관과 중국의 동방의료집단 간의 합작 형태로 불임치료 전문병원 형태로 진출
- 기술제휴 방식으로 진출하였으며, 원스톱 처리 방식 및 코디네이터 배치 등 중국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2005년 4월, 북경군구총의원과 생식의학기술합작 계약을 체결하여 2호점을 개원
 - 북경軍병원은 장소를 제공하고 마리아병원은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여 시험관아기 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

- 국내 의사 1명, 시험관아기 실험 담당 직원 1명, 행정 인력 2명이 한국에서 파견되었으며, 중국 의사(조선족) 2명, 중국 간호사 6명이 근무
- 약 250만 위안(약 3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200건의 불임 시술을 하고 있음

[사례 5] 기타 의료기관

- 우리들 병원
 - 2003년 7월에 북경에 100병상 규모의 척추전문병원 설립 계획을 발표한 후, 상해에 10만 평 규모의 전문병원 계획 등 중국 전역에 50여 개의 병원 체인 설립 계획을 발표
 - 진출 형태는 중국 테슬리사와 합작 형태로 민간병원 공동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계획을 진행 중으로 디스크질환 치료 중심의 1호 병원 설립을 위해 총 2,200만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
 - 2005년 상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신축 북경대병원에 국내 투자자와 의료진 참가
 - 투웬티원프라자와 휴메인홀딩스는 중국 북경대 교내 병원 및 북경중달 동창투자관리유한공사와 함께 60억원 규모를 투자, 병원 경영에 참여하기로 발표
 - 2006년 7월 개원 예정인 북경대병원은 지상 8층에 300병상 규모로 치과, 성형외과 및 국제검진센터 등을 중심으로 진료할 예정
 - 중국 대학병원 최초의 외국 합작 병원으로 상류층을 목표 고객으로 함
 - 총 450억 원의 투자 규모 중 한국 측이 60억을 투자하여 병원 경영에 참여
- 삼성서울병원 : 2004년 말 북경협화대의대 부속 북경협화대의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후 중국 진출을 준비
- 고려대의료원 : 2005년 6월 중국 인민병원과 합작 심혈관 연구소 개설을 위한 조인식
- 대구 달서구 보강병원 : 중국 청도 제1인민병원과 협력 발표
- 대구 중구 미르치과병원 : 중국 산둥성 기박 지역에 현지 의료법인과 합작 법인 설립 검토
- 대구한의대 의료원 : 중국 하남중의학원과 교류 사업
- 영남대 의료원 : 중국 화중과기대 의학과와 장기이식과 성형수술 분야의 협력 사업